

전남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배격'

가축분뇨처리 '농축순환자원화센터'

화순·나주 주민들 "악취 유발" 반발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 중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배격거리고 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인 '농축(農畜)순환자원화센터' 조성을 놓고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남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2006년 순천단지를 시작으로 장흥,

화순, 영암 등 9개 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다.

단지 조성은 사업계획 수립과 시설 설치 등 3년이 소요돼 순천과 장흥은 준공돼 가동 중이며 2009년 시작된 영암과 신안도 계획보다 1년 늦은 지난해 완료됐다.

나머지 화순, 함평, 곡성, 나주, 담

양 등은 관련 사업비 지원 등 시작은 됐지만, 준공까지는 요원한 상태다.

이 사업은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리는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해 600ha 이상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만 100억원에 달한다.

광역방제기, 퇴비살포기, 공동육묘장, 벼 건조저장시설 등과 함께 소와 돼지 등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 퇴비로 만드는 이른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들어선다.

친환경농업 메카를 자임하는 전남

도의 농정 역점 사업 중 하나지만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히 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해 악취 등 환경오염 유발을 이유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09년 시작된 화순단지는 주민들이 반대, 2차례에 걸쳐 부지까지 변경되는 등 제동이 걸린 상태다.

분뇨자원화 허가와 관련 화순군의 돼지 등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 퇴비로 만드는 이른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들어선다.

지난해 시작한 나주단지도 후보지 주변 주민과 인근 사료공장에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부지 선정부터 난항이다. 내년말 완공 계획이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지 미지수다.

화순 등 일부 사업은 애초 사업기간을 넘기는 등 사업 이월이 여의치 않으면 사업비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단위로 친환경 영농을 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인데도 가축분뇨화 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최신식 시설 등으로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성 삼계면 공공청사 준공

면사무소·도서관·보건소 한곳에 둬

장성군 삼계면 주민들의 숙원인 면사무소, 도서관, 보건소가 한 곳에 둬 지를 뒀다.

장성군은 지난 24일 삼계면 사창리 일원에서 김양수 군수를 비롯한 도·군 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계면 공공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삼계면 공공청사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면사무소를 비롯한 도서관, 보건지소가 한자리에 건립됐다. 특히 선비의 고장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모두 전통 한옥으로 건립됐다.

55년 만에 새로 지어진 삼계면사무소는 33억원의 들여 지상 2층에 연면적 951㎡ 규모로 건립됐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청사 이전은 지난 1991년 처음

으로 논의된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년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됐다.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삼계도서관은 연면적 627㎡에 지상 2층 규모로 한옥 도서관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1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지어진 삼계 보건지소는 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36㎡에 지상 2층 규모로 진료실을 비롯해 통합보건의료, 건강진찰실 등을 갖췄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공청사 건립으로 삼계면민들이 행정·문화·의료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공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기자 yongho@

목포 11번째 작은도서관 문 열어

부흥동 청개구리도서관 이 됐다.

목포시가 11번째 작은 도서관 문을 열었다.

25일 목포시에 따르면 부흥동에 문을 연 청개구리 작은 도서관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9000만원을 들여 만들었다.

2900여 가구가 사는 부흥동 인근에는 도서관이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

도서관 명칭도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게 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정했다.

최재을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북카페 운영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 부흥동에 제2의 스티브잡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탄탄한 밑받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KB국민은행 후원으로 조성된 부흥동의 '청개구리 작은도서관'. 국민은행의 37호이자 목포의 11번째 작은 도서관이다. <국민은행 제공>



강진군 군동면 아람영농법인의 고설식 수경재배 하우스를 찾은 여성들이 딸기 수확에 여념이 없다. <강진군 제공>

강진 딸기농가 매출 '100억 시대'

고설식 수경재배 도입... 올 재배면적 60ha 육박

강진군이 시설 딸기 재배농가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 100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강진군 딸기 재배면적은 지난해 기준으로 51ha로 1400t을 생산해 83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올해는 재배면적이 60ha에 근접하면서 소득액도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딸기의 비약적인 상승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고설식 수경재배지원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설식 수경재배는 엷드려서 일을 해야 하는 토경재배에 비해 작업조건이 좋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

만 습득하면 재배가 쉬워 초보자나 귀농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작업환경이 깨끗한 것도 장점이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가 기존 농가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축적된 재배 기술을 초보 농가들에 전수해 준 것도 고설식 수경재배가 정착하게 된 원인이다.

현재 강진군에서 출하되는 딸기의 당도는 평균 12브릭스로 타 지역보다 높다. 강진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높고 출하시기와 일조시간도 다른 지역에 비해 20시간이 많은 지역적인 장점으로 인해 깔끔한 외형까지 갖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고설식 포트 육묘시스템 도입 해야 하는 토경재배에 비해 빠른 개화로 출하시기를 앞당긴 것도 강진 딸기의 성공 비결이다.

3ha의 면적에 조성된 고설식 포트 육묘장에서는 연 300만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군 전체 소요량(500만주)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고설식 포트 육묘는 토경 육묘에 비해 탄저병과 시들음병, 선충과 응애의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인위적으로 개화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타 지역보다 2주 이상 빠른 출하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최영창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장은 "꾸준한 품질향상 노력과 함께 대도시로의 개별출하가 어려운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진농협과 함께 공동선별장을 설치해 단일 브랜드로 수도권 공략에 나서 등 강진 딸기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찾집 수익금 전달, 복지시설 방문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 훈훈한 선행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지역사랑 행사를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혁신도시 첫 입주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는 23일 대회의실에서 일일찾집을 열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선모금을 실시해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1월에 나주시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컴퓨터 청소와 시스템 점검은 물론 기부금 5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금성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매 분기 한차례 나주 지역 시설 등에 컴퓨터 시스템 점검과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11일에 나주 목사고에 시장에서 24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구입했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6일에 자매결연한 봉황정보화마을 4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코미디언 엄용수씨의 웃음 강의와 나주문화예술회관 북고클럽 공연 관람을 지원했다. 200만원 상당의 나주 쌀을 구입해 기증하기도 했다.

한국전력공사 분사신사육개발센터와 나주시 혁신도시지원단 임직원은 최근 삼호수요양원을 찾아가 청소봉사를 실시했다.

/나주=송영철기자 ycsn@

남도골프투어 상품 관광객 유치 '효자'

1500여명 다녀가

전남도가 지난 5월 출시한 남도골프투어 상품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도골프투어는 골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남도가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권협력단, 지역 골프장, 코레일 등과 함께 출시한 상품이다.

지금까지 15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남권 등 외지 골프 관광객 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 골프관광객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내년 1월 출시할 해외 상품은 골프 관광객이 급증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골프인구가 많은 일본이 주요 대상이다.

남도골프투어 상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통합판매사이트(http://namdogolftour.co.kr/)를 참조하거나 남해관광(062-225-5544)에 문의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TV **조선**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